

제38호 201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 THE FIRST & THE BEST

우리 대학으로 가자 세계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Blooming

봄은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정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펴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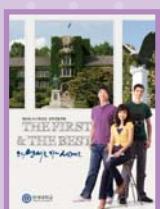
우리 학생들도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펼치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에 더욱 소중한 스무 살의 젊음을

이 봄, 마음껏 꽃 피우세요



## COVER STORY

양우진(04, 교육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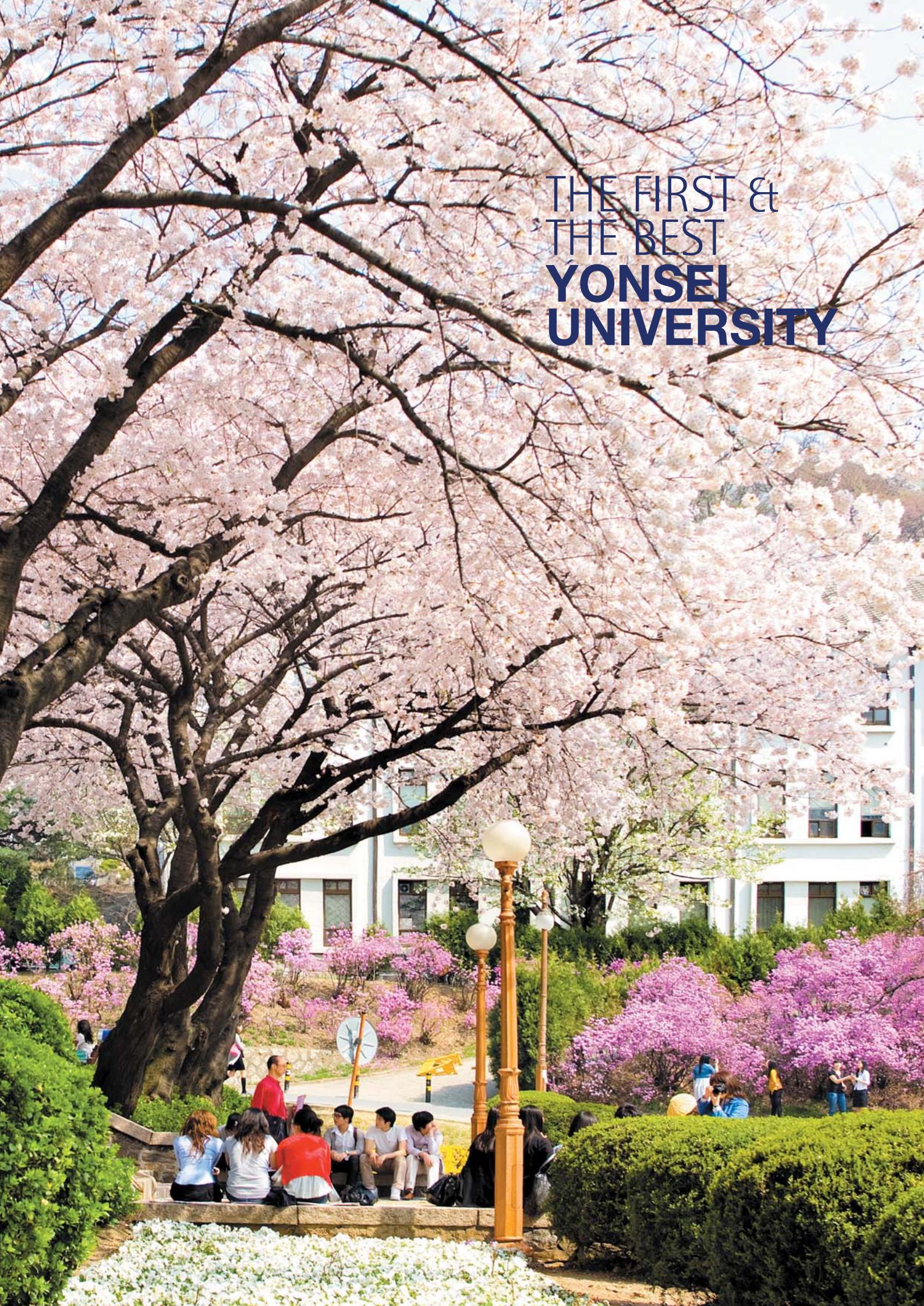
김시란(08, 언더우드국제대학)

Daniel Tompa(09, 언더우드국제대학)

## CONTENTS

- 2~3 목차/인트로
- 4~5 연세, the First
- 6~7 연세, the Best
- 8~9 Zoom In Yonsei
- 10~11 세계로 가는 연세
- 12~13 네 꿈을 펼쳐라
- 14~15 Head & Heart
- 16~17 캠퍼스 스토리
- 18~19 Proud of You
- 20~21 Supporting Service
- 22~50 2010 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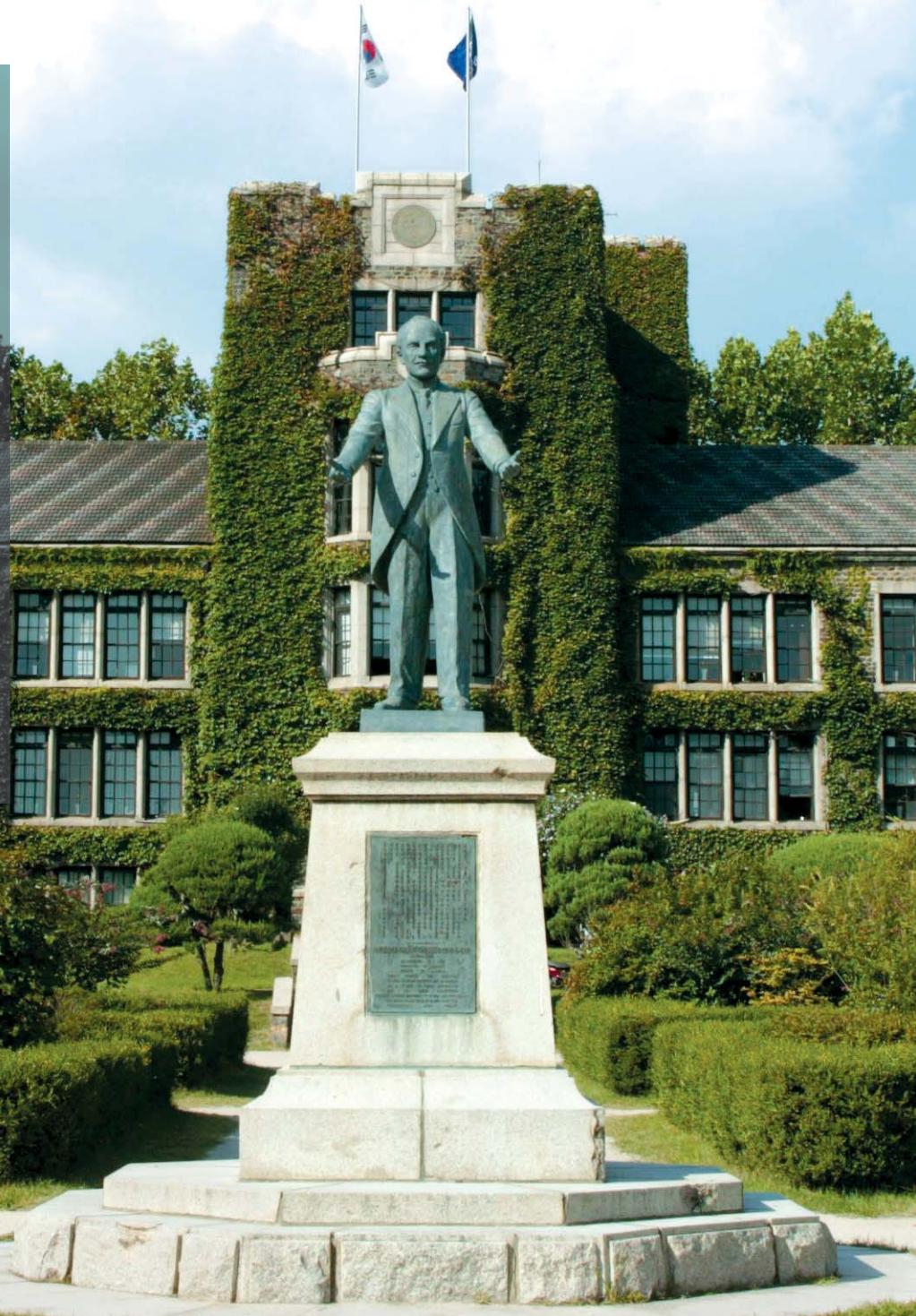


A scenic view of Yonsei University's campus during spring. In the foreground, a large tree with dense pink cherry blossom branches dominates the left side. To its right, several wooden lampposts stand on a stone wall where several students are sitting. The background features a white building with many windows, surrounded by greenery and more flowering trees, including clusters of purple azaleas.

THE FIRST &  
THE BEST  
**YONSEI  
UNIVERSITY**

# 연세, 개척과 도전의 역사

- ‘진리와 자유 라는 학풍을 바탕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온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오늘 날 대한민국의 대표 명문대학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의 시초를 돌아보고,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 내일의 연세를 그려본다.



## 延世

### 연세, 빛나는 역사

연희전문학교



상파구립여보의 인자연습원경  
1919년봄



상과경영연구회원일동  
1928년봄



백남운교수-상품학강의장  
1929년봄



**연세의료원, 한국 근대 의학의 역사** ● ○ 조선 후기 이후 서양의학 지식이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 한국에 조금씩 들어 오기 시작하였으나 치료를 목적으로한 서양의학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알렌에 의해 1885년 4월 10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망혜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제중원에서는 1886년부터 의학생을 뽑아 의학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서양의학교육이다. 1894년 9월 한국정부로부터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관 받은 에비슨은 의학교육을 지속하였고 세브란스로부터 기증받은 돈으로 1904년 9월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완공하고 1908년 6월에는 제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였다.

**근대 대학의 시초, '연희전문학교'** ● ○ 1915년 3월 5일,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였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한국명\_원두우)'는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을 설립하고, YMCA 건물 일부를 빌려 임시로 강의를 시작했다. 바로 연세대학교의 모체인 연희전문학교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1917년에는 한국 유일의 전문학교인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연희전문학교는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을 목표로 대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여 1946년 8월 15일 종합대학교인 연희대학교(Chosun Christian University)로 인가 받았고, 1950년에는 4년제 대학졸업생을 배출하고, 대학원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연세대학교의 대학의 시초가 된 연희전문학교의 주목할 만 한 점은 서구의 근대학문을 본격적으로 교육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근대적 연구방법에 의해 국어, 역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와 경제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학을 조화롭게 발전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신문화의 선구자** ● ○ 개교 아래로 연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덕유(德育)', 근대 학문연구의 '자유(智育)'과 함께 다양한 '체육(體育)'의 조화로운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체육, 음

악, 연극 및 각종 동아리 활동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발전시켜 간 것은 바로 조화롭고 자유로운 교풍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의 상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축구단, 정구단, 야구단 등 14개 체육단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주관하는 중요 체육대회로서는 매년 전조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육상경기, 무도, 야구 등의 대회가 있었다고 한다. 또 1935년의 상황보고에 의하면 체육단은 권투단, 스기단, 육상하키단, 검도단, 수구단 등을 포함하여 19개로 확대되고, 농구단의 일본원정과 축구, 야구 등의 지방원정 경기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도 연희는 진보적이었다. 1930년경 원한경, 현제명 교수 등의 인솔로 음악단원이 평양과 진남포 등 지방에 연주여행을 행하였다. 또한 1932년부터는 제1회 전조선남녀 하기 음악 강습회를 본교에서 개최하고, 전조선 남녀중등학교 음악대회도 개최하였다. 그밖에도 각종 언론활동이나 연극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행하였으며, 문화관련 분야의 학생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 과학을 일궈온 이과·공학교육** ● ○ 연세의 이과 교육은 1915년 4월 연희 전문학교에 국내 최초로 수물과와 응용화학과를 개설하여 근대과학을 국내에도 도입한 이래, 현대 자연과학 연구 및 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1946년 8월에는 연희대학교 이학원으로 인가되어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가 설립되었다. 1950년에는 이공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연세 공학은 공업화학과와 전기공학과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그 규모가 확장되어 이학부와 공학부로 분리되었고 1976년에는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함께 의료,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초'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 교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임을 자부하며 이 땅의 수많은 지성인을 키워내고 있다.

연세의료원



왕립병원원래원전경  
1886~1887

신문화의 선구자



병리조직학실험광경  
1915



연희관 사진  
1957 일정

이과·공학교육



광물학실험실



화학실험실

# 연세, 세계에 빛나는 연구프론티어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1차년도에 1,650억 원, 5년 간 총 8천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 WCU사업 심사결과, 연세대학교는 총 9개 과제가 선정되어 1차년도에만 약 77억 2천만 원, 총 380억 원 기량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에는 사회과학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아 경제학 분야에서는 단 2개 과제만이 선정되었는데, 이를 모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가 유치했다.

- 새로운 학과 · 전공 개설을 지원하는 과제인 유형 1에서는 서진근 교수(수학)의 '과학 계산 공학'과 정인권 교수(생명시스템대학)의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이 선정됐다. 유형 1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학과 · 전공의 교수 규모에 따라 대학원 학생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서진근 교수팀**은 WCU사업을 통해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CSE)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CSE는 공학, 의료영상, 자연과학 및 산업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수리모델링-컴퓨터 시뮬레이션-시각화 과정을 통하여 예측-분석,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계산과학 중심의 다학제 대학원 과정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계산과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Max Gunzburger 교수와 독일 훔볼트 대학의 Carsten Carstensen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대거 영입했다.

**정인권 교수팀**은 WCU사업을 통해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Integrated Omics for Biomedical Science) 전공을 대학원 과정에 개설한다. 이를 통해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이미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내 연구자들과 국제적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세계수준의 연구 및 교육을 선도하는 연구 집단을 육성하여 포스트 게놈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학자로는 UC버클리 Sung-Hou Kim 교수, 노스이스턴대학 William Hancock 교수, 취리히대학 Jürgen Roth 교수, 미시간대학 Nam-On Ku 교수 등이 있다.



- ○ 해외학자와 협력연구를 강조하는 개별학자 초빙지원 과제인 유형 2에는 김진우 교수(경제학)의 '글로벌경제와 시장설계'와 김동호 교수(화학)의 '지능형(스마트) 나노 복합체 연구'가 선정됐다.

**김진우 교수**는 콜롬비아대학의 Yeon-Koo Che 교수를 유치해 글로벌경제와 시장설계(Global Economy and Market Design) 연구를 진행한다.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 탄소 배출권 시장 등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시장 설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하고 학생들을 교육하여 시장 설계 연구자에 대한 미래의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김동호 교수**는 스마트 나노복합체 개발을 위해 유기나노물질 관련 국제 저명학자인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Jonathan Sessler 교수와 나노복합체 제조, 물성 연구의 국제 저명학자인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Dongil Lee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나노물질의 전기적, 광학적, 초고속 분광학적 분석기술 개발은 혁신적 나노 기반 기술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며, 고효율성 나노 측매 개발 연구는 환경 친화성 유기합성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나노과학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 ○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 석학의 초빙을 지원하는 과제인 유형 3에서는 장용성 교수(경제학)의 '불완전 자본 시장 하에서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동태적 거시 일반 균형모형 개발 및 응용', 이명의 교수(원주 화학 및 의화학)의 '실리콘 신소재 개발사업', 이원태 교수(생화학)의 '새로운 개념의 막단백질 구조유전체 연구 및 응용', 오영준 교수(생물학)의 '퇴행성신경계질환 관련 새로운 인자의 발굴 및 치료전략의 개발', 박준홍 교수(토목환경공학)의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오염 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지원 탐사를 위한 돌파성 메타지노믹스'가 선정됐다.

**장용성 교수**는 경제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American Economic Review'의 편집장인 아리조나 주립대학 Richard Rogerson 석좌교수를 초청해 대학원 '특수 문제' 강의를 개설하고, 불완전 자본 시장 및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 일반 균형 모형 개발 연구를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의 교수**는 노벨화학상 후보로 세 차례나 지명된 바 있는 유기금속화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Robert West 교수를 초빙해 '유기금속 집중과정' 강의를 개설하고, 실리콘 신소재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태 교수**는 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자 구조생물학, 구조유전체학, 화학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Kurt Wüthrich 스위스 연방기술원 교수를 초빙해 새로운 개념의 막단백질 구조유전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학부생을 위한 '프론티어 생명과학' 강의와 대학원생을 위한 세미나시리즈 강의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영준 교수**는 퇴행성신경계 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일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약물개발의 권위자인 Tech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의 Moussa Youdim 교수를 초빙한다. Youdim 교수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인 마이크로시스템 관련 강의를 할 예정이며, 오 교수와 함께 M-30, VK-28 및 유도체의 신경 보호기능의 발굴 및 신약후보군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박준홍 교수**는 환경미생물생태 메타지노믹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시간 주립대학의 James Tiedje 교수를 초빙한다. 박 교수와 Tiedje 교수는 Pyrosequencing 기반의 기능성 메타지노믹스 기술이 전과 이를 활용한 수소 및 부탄을 생성 미생물지원 탐사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저에너지 저탄소 하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지원 탐사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연세소식  
(<http://www.yonsei.ac.kr/eand>)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9개 과제 선정

연간 77억 원, 총 380억 원 지원받아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대거 영입

### 유형 1 : 새로운 학과 · 전공 개설 지원 과제

연구 책임자	연구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해외 학자수	장원증원 한도
서진근	고학 계산 공학	1,746	6	25
정인권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2,786	4	30

### 유형 2 : 개별학자 초빙지원 과제

연구 책임자	연구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해외학자 참여수
김진우	글로벌경제와 시장설계	341	1
김동호	지능형스마트 나노 복합체 연구	1,579	2

### 유형 3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

연구 책임자	연구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장용성	불완전 자본 시장 하에서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동태적 거시 일반 균형 모형 개발 및 응용	224
이명의	실리콘 신소재 개발사업	260
이원태	새로운 개념의 막단백질 구조유전체 연구 및 응용	260
오영준	퇴행성신경계질환 관련 새로운 인자의 발굴 및 치료전략의 개발	260
박준홍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오염 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지원 탐사를 위한 돌파성 메타지노믹스	260

(지원금액은 1차년도 배정 금액임)



# Creative Leadership 을 갖춘 Global Leader 양성의 요람

- 21세기 경영의 핵심 화두는 Creativity(창의성)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우리나라 경영학의 선두주자로 지난 90여 년 동안 선견지명적 통찰력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우리나라 경영 환경을 주도해왔다. 21세기 새로운 화두인 Creativity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경영학과는 Creative Leadership(창의적 리더십)을 새로운 미션으로 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치로 Creativity(창의성), Global Perspective(세계적 시각), Integrity(윤리성)를 강조한다. 특히 각 핵심기치를 지수화 한 창의성 지수, 세계성 지수, 윤리성 지수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수업 활동, 동아리 및 교내외 활동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갖춘 Creative Global Leader를 양성하고 있다.



### 이상적 인재 양성의 밑거름 “탄탄한 커리큘럼”

경영학과의 미션은 “Creative Leadership—탁월한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으로 핵심기치인 창의성·세계적 시각·윤리성이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세 가지 핵심기치를 두루 갖추고 경영학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를 이상적인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구성하였다. 전공 기초와 필수 과목을 강화하여 학문적 전문성을 높이고 40여 개의 전공 선택을 통해 심화 학습이 가능하고 현장학습 및 리더십 배양을 위한 과목들로 학생들의 실제적인 실무 적용 능력을 높여 주고 있다. 또한 경영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2009년부터 전격 도입하여 법률지식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가장 친근한 단어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글로벌은 가장 친근한 단어이다.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세계 유수 대학에 파견되고 400여 명의 인바운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같은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나 과제 발표를 위한 토론의 기회가 많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는 해외 저명 교수들의 초청 특강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혀 나가고 있다.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유겟(uGET, 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eam Project)과 세계기업현장실습 등이 있다. 특히 유겟은 기업, 학교, 학생 3자간 원-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수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해외 시장을 방문하고 글로벌 시장을 직접 체험한다. 2008년 10개팀 32명의 학생들이 아프리카, 남미, 중동, 중국,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우리은행, 롯데백화점, 다음, GS건설, SBSi, TNS 7개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 동문, 교수, 선배가 함께 하는 진로 탐색

경영학과는 동문, 교수, 학생이 함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과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좌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신입생 동문멘토링, 재학생들이 사회 특정 분야의 특강과 토론으로 창의성과 현장성을 체험하고 주요 기업의 커리어설계까지 이어지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포럼, 각 분야 동문 선배들을 모시고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분야의 분석과 이해도를 높이는 연경리더스포럼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전문성 가진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택하

여 학문적 전문성과 이를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쌍방향지도교수제에 이르기까지 삼위 일체의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사회 진출

공인회계사 4년 연속 합격자 최다 배출, 누적 합격자 최다 배출이라는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영학과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CEO, 언론계, 법조계, 정부관료,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상경대학 동창회장인 김정수(제이아스 회장), 정만원(SK Telecom 대표), 유상호(한국투자증권 대표), 김영진(한독약품 대표), 구본길(LG파션 대표),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구재상(미래아셋자산운용 대표) 등 수많은 동문들이 CEO로 활약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신상민(한국경제신문 대표), 이병규(문화일보사 대표), 김수길(중앙일보 편집인) 등이 진출해 있다.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조계 동문, 정부관료인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병록(환경부 차관), 허용석(판세청 청장) 등,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구본창(사진작가), 손범수(아나운서), 김광진(가수), 오상진(아나운서)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학풍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고 이를 이끌어 주는 동문들이 경영학과의 저력이라 할 수 있다.

### AACSB와 KBEA 경영학 인증 모두 획득

AACSB는 경영학을 주도해온 미국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KBEA는 경영학 교육의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인증이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분히 갖추었음은 물론 한국 경영학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경영대학의 새로운 청사진 “Creativity Powerhouse”

2011년 말 완공될 경영대학 신축건물 “Creativity Powerhouse”는 연세 경영이 세계 속의 연세 경영으로 거듭 나는 전환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폴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건축계의 거장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설계한 신축건물 Creativity Powerhouse는 창조적 생각과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연세 경영이 이루는 또 하나의 결실이 될 것이다.

# 연세대의 Global Program



## ● 교환학생 제도

교환학생은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2009년 3월 현재, 58개국 583개 기관)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본교에서 학점 인정을 받고 졸업하는 제도이다. 파견 기간 동안 파견대학의 등록금이 아니라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환학생은 학생 교환협정이 체결된 상대 교환대학과의 학생교환수가 균형(Balance)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약 800명의 재학생이 해외대학으로 파견되었다. 파견대학 및 경험보고서는 다음의 사이트(<http://www.yonsei.ac.kr/contents/sinchon/report.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SAP(Study Abroad Program)

해외대학 교환학생제도 외에 국제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정규 수업과 학점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연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견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원 제한 없이 파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방문학생제도 (Visiting Student Program)

해외 우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파견되어 해당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게 된다. 본교와 파견대학 두 곳에 모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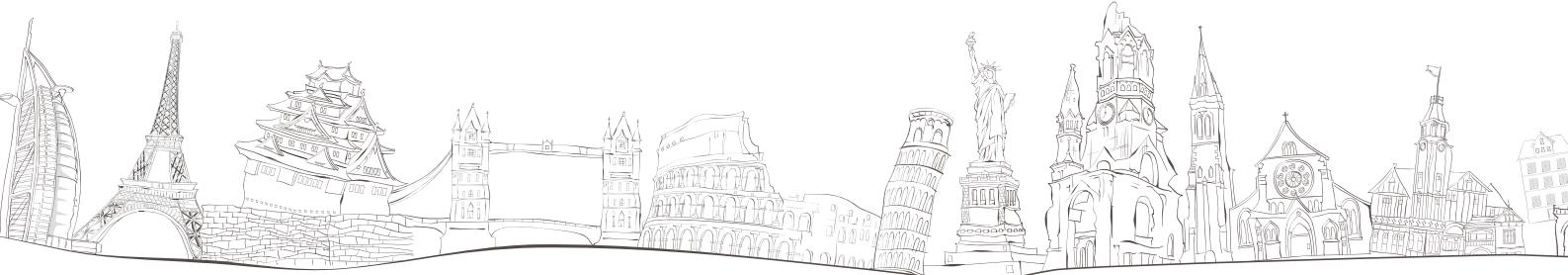
등록금의 일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파견대학에 저렴한 수업료 납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파견 기간 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교류함으로서 사고의 폭과 인적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

## ●●● Global Internship Program

Global Internship Program은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Global Internship Program은 보편화된 어학연수와는 달리 국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실제 급변하는 기업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졸업 이후의 경력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한 학기 동안의 인턴쉽을 수료한 후 본교에서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Global Internship Program의 효과

- 실무 중심의 학습
-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 국제 경쟁력 제고
- 외국어 능력 향상과 문화 습득의 기회
- 향후 경력 개발



# 더 넓은 세계에서 만나는 특. 별. 함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교환학생

글 노혜린 경영학과 06학번



## ●●● About UNC-CH

UNC-CH은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채플힐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수업듣는 강의실들이 모여 있는 캠퍼스 자체의 크기는 연세대학교보다 작은 편이나 기숙사, 병원, 연구소 등의 커뮤니티가 함께 있다보니 전체적인 규모는 큰 편입니다.

낯선 나라,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응하나 미리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에 처음 도착하면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역 소개, 학교생활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환학생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부를 통해 컨버세이션 파트너(UNC 학생과 교환학

생을 연결해주는 1:1 버디 프로그램), 호스트 패밀리(교환학생이 지역 내 한 가정과 연계 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신청하여 현지 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부에 일하는 분들이 다들 친절하고 좋으셔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 ●●● Exciting my life

이곳 학생들은 한 학기에 보통 4~5과목을 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과제가 많은 편이라 학기 중 로드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한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리포트 등 우리나라의 수업들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개강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수업을 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 수업은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듣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니 UNC에 지원하고자하시는 경영학과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수업도 많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미술과목, 연극을 배우는 예술과목, 승마, 골프 등의 체육수업 등등 다양한 수업을 경험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UNC 농구경기는 꼭 보세요! UNC농구팀은 UNC의 자랑입니다. 봄 학기에 가시는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있던 학기에는 UNC 가 NACC에서 Final Four까지 진출했었는데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UNC의 맞수, Duke와의 경기도 한일전을 병불케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응원열기가 뜨겁습니다. 학교의 Gym도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여러 운동 경기장이 갖추어져 있으며 요가, 댄스, 헬스짐중 프로그램 등 GX도 다양하니 직접 여러 운동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 내가 만들어 가는 美來

- 자성과 미모를 함께 갖추기란 쉽지 않다는 우리의 편견을 깨버린, 엘리트에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능력 있는 여자, 장윤희(영문/경영·06). 그녀는 '미스코리아 美에 당선되면서 주변의 많은 부러움을 사게 되었지만 이 또한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학생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그녀는 오늘도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간다.



##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 장윤희 학생은 2008년 ‘서울 眞’으로 출전하여 ‘미스코리아 美’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얻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이기 이전에 연세대학교의 학생이었고 학업 우등상을 받을 만큼 공부에도 열심이었다. 그런 그녀가 미스코리아에 나가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그녀는 “작년 3월부터 3개월간 패션회사에서 인턴활동을 했었어요. 평소 화장품이나 뷰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뷰티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 뷰티 쪽에 관심이 많다면 뷰티 컨텐츠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인들이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생들에 비해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고 대회에 출전하였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둬 저도 놀랐죠. 미스코리아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스피치, 헤어, 메이크업 교육, 안무, 워킹 등 저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방법과 스타일을 찾



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인대회는 보통의 학생이 공부하는 그런 과정과는 조금 달라 준비하는 내내 모든 과정들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친구들과 부모님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라며 주변에 고마움을 전했다.

## 꿈을 키우고 나를 키우다

◎ “연세대학교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있고, 저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던 제가 뷰티패션 분야 CEO가 되겠다고 한 것도 이중전공한 경영학관련 인턴십 과정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연세대에서 많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생이 된 후 새로운 꿈을 찾아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렇게 뜻 소리 나는 장윤희 학생에게 예비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야무진 조언을 부탁했다. 그녀는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자신의 길에 맞게 자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자기계발’에 시간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은 스스로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공부에 흥미 있는 친구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분야에 흥미 있는 친구는 자기가 재밌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입시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시련과 성공담을 듣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가능한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당부했다.

##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 학생으로서도 욕심 많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들어보았다. 장윤희 학생은 ‘미스코리아’ 관련 활동들이 저에게 매우 특별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스타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서 뷰티 경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는데, 뷰티와 패션 분야의 CEO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어쩌면 평범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지만, 미스코리아 당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뷰티와 패션분야의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2008년 미스코리아 공식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미스코리아 관련 행사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는 그녀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숨은 노력과 열정이 모여 그녀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 ● 백인백색(百人百色)의 어우러짐

국제연세학생회(International Yonsei Community, 이하 IYC)는 1995년, 연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외국 학생들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창립되었다.

학기 시작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교환학생들을 미중 나가는 Pick-up Service, Welcome Party와 한국을 소개하는 Tour를 하고, 학기 중에는 주요 행시인 International Cooking Festival, 신입생 MT, Global MT, IYC Day를 포함해서 게릴라 앰티 봄·가을소풍 등 교환학생 또는 MCian과 함께 대학생활을 즐기고 정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IYC 안에서는 축구(IYFC), 볼링, 당구 등 운동 소모임과 맛집 투어, Korea School 등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소모임도 있다.

### ● 우리는 이미 세계인

국제교류란 단어에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활 속의 국제 교류라는 것은 생각만큼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함께 MT를 가고, 아카데미와 연고전을 즐기고, 학교 축제 때 정성스레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외국 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또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다양성을 경험하고 그들과의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IYC 회장 예홍규 학생은 “외국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알려주다 보면 우리나라에 더 애정이 가고 관심도 더 가지게 됩니다. 꼭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의사소통만으로도 마음은 통하는 거니까.” 라며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 교환학생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존재하는 IYC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 동아리이니 IYC를 통해 보다 넓은 세계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연세 안의 지구촌

# I.Y.C.

다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혁. 가. 다.



### ● 오케스트리의 매력에 빠지다

'유포니아(Euphonia)'는 그리스어로 '좋은 이란 뜻의 'Eu'와 '소리'라는 뜻의 'Phony'를 붙여 만든 이름으로 '좋은 소리가 나는 곳'이란 뜻이다. 유포니아는 전국대학생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3차례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실력과 규모에서 국내 최고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고 있다. 훌륭한지도 교수님과 정기 공연, 그리고 각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파트장과의 연습, 방학 중 일주일간의 음악캠프 등을 통해 점점 향상되는 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유포니아의 강점이다.

유포니아는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아마추어 특유의 실험 정신으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연주 영역을 넓히는 데에 힘쓰고 있으며, 1988년 창단 이래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해 오면서 그 수준을 점차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 것!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서 유포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활동과 연습과정에서 단원들의 개성과 색깔을 존중한다는 것.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조화로운 화음이 나오는 오케스트라만의 특성이 그대로 배어있다. 유포니아는 고학번 학생도 원주캠퍼스 학생도 신입 단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학번과 나이, 학적 제한이 없는 열린 동아리다.

신입 부원은 학기마다 뽑고 있으며 42명 정도 선발하는데 120명가량이 지원하고 있으니 경쟁률은 좀 높은 편 유포니아의 단장 신정우 학생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면접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보편적인 악기가 아닌 악기에 도전한다면 보다 승산이 높겠죠.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끈기만 있다면 유포니아의 단원 자격은 충분합니다." 라며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했다.

감성의 울림

# EUPHONIA

음률의 조화로

충만한 행복을 맛. 보. 다.





# 현재의 내가 자라고 연 . 세 . 대 . 학 . 교 . 학 . 술 . 정 . 보 . 관 미래의 꿈이 커진다

- 2008년 개관한 학술정보관은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디지털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고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돋고 있다. 스마트학생증으로 입·출입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그룹 스터디의 공간도 활용하며, Digital Desk의 터치스크린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첨단 도서관. 학술정보관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가고,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정보를 탐색,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연세대 학술정보관의 Special Point를 찾아보자!



### 소규모 스터디 룸

그룹 과제를 하거나 공모전 준비를 할 때, 더 이상 토론할 자리가 없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학술정보관에 있는 소규모 스터디 룸은 도서관이라 원하는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리문의 방이라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토론할 수 있으며, 보드 판과 노트북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 대규모 회의 진행

학술정보관 6층에는 장기원 국제회의실이 있다. 화상회의, 녹화, 동시통역 시스템 155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이나 국제적인 회의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 도서관 안에 영화관이?

10명이 넘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괜히 학교 밖에서 DVD방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학술정보관 2층으로 가보자. 2층 멀티미디어실 데스크 왼편에는 깔끔한 외관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미디어감상실이 있다. 최대 40명까지 수용 가능한 미디어감상실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도 좋다. 편안한 의자가 계단식으로 놓여있으며 방음시설도 갖추고 있다.

### 나도 영화 제작자

영화보고 났더니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미디어감상실 바로 옆의 미디어개발실을 이용하면 좋다. 미디어개발실은 스튜디오와 편집실로 구분된다. 스튜디오에는 블루 스크린과 조명 뿐 아니라 카메라도 설치돼 있어 찍힐 것만 있으면 촬영이 가능하다. 편집실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영상을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평범한 도서관, 그 이상의 학술정보관의 다양한 학습 시설들을 누리는 연세인들은 첨단 장비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오늘도 연세만의 경쟁력을 높여간다.

자료제공 : 연우(연세춘추가 만드는 웹진)  
(<http://www.yondqnet>)



#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다

● 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모른다는 사법고시, 그 힘든 시험의 문을 뚫고자 하는 고시생들이 오늘도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고시생이라면 언뜻 공부만 아는 답답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겐 멋진 법조인이 되리라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다. 꿈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선택한 고시준비생들을 대표하여 제5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주형 학생(법학·05)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대학을 삼수를 해서 힘들게 들어와서 남들보다 수험생활을 오래한 편이에요. 학교 들어와서도 하고 싶은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책을 봤으니 3년 반,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2년 반 정도 됐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출세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시 공부가 워낙 힘들어서 지하세계에서 이제야 인간세상으로 나온 느낌이에요.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해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었죠. 그리고 시험공부에 있어서는 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 부분이라 까다롭고 어렵다기 보다는 공부할 범위가 넓고, 양도 많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7과목을 보는데 기본 과목당 1000page가 넘어가니까 양이 정말 많죠. 하지만 아무리 공부할 양이 많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통과하고 붙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무언가를 외우고 기억하는 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니까 자신만의 공부세계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견딜 수밖에 없는 시간이면 얼마나 오래 잘 버티고 공부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게 싫다고 밖으로 돌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붙을 때까지 바짝 열심히 하면 그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요.

## 학교에 국가고시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요?

사시 지원반은 정보공유 등 고시생들의 편의를 봄아는 팀이 있고, 그 안에 독서실 개념의 고시반이 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과 비교를 하자면 우선 비용이 무척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신림동은 독서실비, 학원비, 원룸(또는 고시원)비용 등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중앙도서관, 고시반에서의 공부, 법대전용기숙사 생활 등 학교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의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 고시촌의 반액 정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는 고시준비생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분전환이 됐었어요. 각각의 공부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해줄 순 없지만 장단점을 피악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 법조인으로서의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검사가 꿈이에요. 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포커스가 가해자에 집중되고 있다보니 공권력은 이 사람을 가두고 벌주고자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듯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범죄를 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사사건에 한정을 하자면,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위해 주냐는 것이죠. 보통 피해자들은 나서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나로 인해 타인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도록 하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수험생활을 오래해서 그 기분을 정말 잘 압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고집하게 될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언어영역 같은 경우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생각해서 문제만 풀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공부 방법 같은 경우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스케줄을 정하고 양을 정해서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때는 즐기면서 해야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1, 2년 늦고 빠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눈 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정진해 나가는 끈기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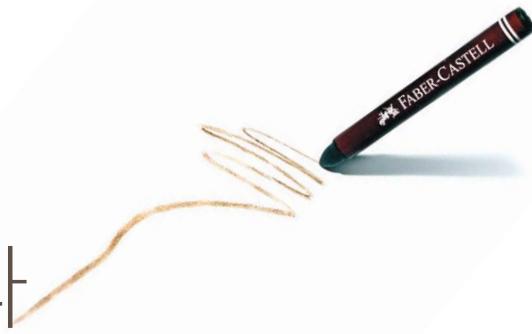
## 국가고시지원센터 <http://exam.yonsei.ac.kr>

국가고시지원센터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고시 합격자 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학생복지처 소속 행정부서이다 현재 지원하는 국가고시는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리사이며 이 시험들을 중심으로 기숙사와 고시반 운영 장학금 지원, 각 시험을 대비한 특강 및 모의고사 실시 등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고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아래 우리대학교는 각 국가고시에서 사립대학교 중 합격률 1위의 자리를 굳하고 있다.



# 봉사를 통해 비전을 세우다

글 김태호 경제학부 06학번



“

처음 내가 느꼈던 ‘절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희망’으로 바뀌어갔다. 단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기엔 천사들의 마음은 너무도 순수했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소중함’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

## 내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인연

◎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 학원 영어 선생님이 당신께서 속한 ‘천사모(천사들의 모임)’라는 봉사 단체에서 하는 양육봉사를 권유하셨다. 일요일마다 은평천사원이라는 곳에 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였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천사원은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다. 천장을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던 아이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운증후군 환자들, 늙수레한 외모에 비해 행동은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들, 그곳은 정신자체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 봉사활동을 마치고 충격을 받은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선생님의 계속된 회유에 점점 돌아서기 시작했다. 처음 내가 느꼈던 ‘절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희망’으로 바뀌어갔다. 단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기엔 천사들의 마음은 너무도 순수했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소중함’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자 놀랍게도 나는 천사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고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나에게 보내는 눈빛만으로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이가 되었다(은평천사원의 장애인들은 비교적 높은 급 수의 정신자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화 한마디 나누기도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장애의 언덕은 결국 마음의 교감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까지 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주말이면 천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고3 여름방학이 끝난 뒤, 나는 본격적인 대학입시로 인해 은평천사원 봉사활동을 쉬게 되었다. 꼭 다시 찾겠노라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수능 시험까지 남은 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듬해 나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주변의 축하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천국에 있는 것 마냥 신나는 대학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내가 다시 천사원을 찾게 된 것은 대학교 학사





## 연세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 연세자원봉사센터–

<http://love.yonsei.ac.kr>

자원봉사센터(Yonsei Volunteer Center)는 연세공동체의 나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섬기는 리더를 지원한다. '사회의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연세의 섬기는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도록 ▲ 섬김을 위한 연세공동체의 참여 극대화 ▲ 연세공동체의 자원봉사를 통한 Social Impact 극대화 ▲ 사회 섬김 활동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안정적 기반 마련에 역할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통합관리 및 체계화와 봉사활동 일감 소개 및 지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일이다. 주요 업무로는 사회봉사교과목 관리 및 평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외부 사회봉사기관과 연계, 자원봉사 교육, 봉사활동 캠페인 및 모금활동,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지원 등이 있다.

### 주요업무

- [2005년] • 연세자원봉사단 출범
- [2006년] • 장애학생지원팀 출범 • 서대문구청과 지역협력 협약체결  
• 연세사회봉사상 제정 • 사회봉사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2007년] • 연세 나눔 콘서트 개최 및 홍보대사 선정(강수정, 박진희 박진영, 공지영 김영하)  
• 봉사활동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7개팀)  
• 서울시 교육청과 대학상멘토링 사업 협약 체결 • 태안지역 봉사활동(600명 참여)
- [2008년] • 희망월장대(농어촌지역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  
• 자원봉사 전담부서 "자원봉사센터 신설" • 제1회 연세자원봉사 프리젠테이션 대회  
• 사회봉사교과목 22개 운영(연간 2,000명 봉사활동 참여)

포털에 뜬 공지사항 때문이었다. 공지사항의 내용은 교내의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사회봉사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과외를 2개나 하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봉사 시간까지 할애하기엔 일주일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어서 난감해 하고 있을 때, 불현듯 천사원의 천사들이 떠올랐다. 입시지옥에서 견뎌야 하는 고등학교 시절, 나의 마음을 사랑과 헌신으로 정화시켜 준 정신적 양분인 '천사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

### 모두가 행복해지는 '봉사'

◎ 개강을 하고 1주일 뒤,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나를 비롯한 수강생들은 요일별 봉사활동 일정들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시간표를 확인해보니 나의 수업시간과 일정들이 모두 겹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라도 꼭 천사들을 만나고 싶다며 담당교수님께 부탁을 해보았지만 교수님은 배정된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고민하던 찰나, '과외봉사'라고 적힌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천사'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분명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음에도 기단한 환경 때문에 공부를 가까이 하기 힘든 청소년들을 돋는 것 역시 매우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선택했다. 놀라웠던 것은 내가 가르칠

학생이 사는 곳 역시 은평천사원이었다는 점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학생을 기다렸다. 예절도 바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수업 중 간간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진솔한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내가 학생과 진지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행복했다.

아이는 늘 자신이 공부하는 것에 있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아이와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일전에 가졌던 꿈인 교사가 돼서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과 교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과의 의사소통에 적합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뻗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들과 같은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교사보단 더 실제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육에 더욱 봉사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낳았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 내가 받은 장학금은 특별한 사회봉사 이수가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을 알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 이란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며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뜻 깊은 것인지를 배웠다. 참된 봉사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소중함을 느끼는 소통이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통해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넘어서 이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 YONSEI UNIV.

<b>22</b>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개요
<b>23</b>	서울캠퍼스 전형일정
<b>24</b>	서울캠퍼스 전형 주요 사항
<b>26</b>	서울캠퍼스 전형 안내
<b>31</b>	서울캠퍼스 FAQ
<b>34</b>	서울캠퍼스 논술시험 안내
<b>40</b>	원주캠퍼스 전형일정
<b>41</b>	원주캠퍼스 전형 주요 사항
<b>43</b>	원주캠퍼스 전형 안내
<b>48</b>	원주캠퍼스 FAQ

##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개요



-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기진 학생 선발을 위해 전형요소 별로 지원자가 본인의 장점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유형을 특성화함
-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2학기의 일부 전형을 통폐합 또는 신설하며, 수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외국인 전형과 정 시모집은 2009학년도의 틀을 유지함
- 수시 2학기 모집은 2~1차 모집과 2~2차 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수시 2~1차 모집, 수시 2~2차 모집에 복수 지원 가능함)
- 수시 2학기 모집의 일부 전형과 서류 평가, 지원자격 심사 등에 입학사정관 활용을 대폭 확대함



본 전형계획(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관련 세부 사항은 입학요강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1 교내 입학설명회

- 가. 2010학년도 전형계획 안내 : 2009. 4. 25(토)  
나. 수시 2학기 모집 안내 : 2009. 8. 29(토)

## 02 수시 2학기 모집

- 가. 입학원서 접수 : 2009. 9. 9(수) ~ 9. 12(토)  
나. 수시 2-1차  
– 음악대학 1차 실기시험 : 2009. 9. 19(토)  
– 음악대학 2차 실기시험 : 2009. 9. 26(토)  
– 논술시험 : 2009. 10. 9(금) ~ 10. 10(토)  
– 체육특기자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발표 : 2009. 10. 12(월)  
– 체육특기자 면접구술시험 : 2009. 10. 17(토)  
– 조기졸업자/글로벌리더/음악대학일반우수자/체육특기자 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0. 27(화)  
– 일반우수자 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2. 13(일)  
다. 수시 2-2차  
– 진리·자유 전형 서류평가 대상자 발표 : 2009. 9. 30(수)  
– 진리·자유 전형 서류접수 : 2009. 10. 6(화) ~ 7(수)  
– UIC/진리·자유/사회기여자 전형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발표 : 2009. 11. 19(목)  
– UIC/진리·자유/사회기여자 전형 면접구술시험 : 2009. 11. 28(토)  
– 합격자 발표 : 2009. 12. 13(일)  
라. 등록 : 2009. 12. 14(월) ~ 12. 16(수)

## 03 정시 모집

- 가. 입학원서 접수 : 2009. 12. 21(월) ~ 12. 23(수)  
나.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2009. 12. 31(목)  
다. 체육 실기시험 : 2010. 1. 4(월) ~ 1. 9(토)  
라. 음악대학 실기시험 : 2010. 1. 11(월) ~ 1. 16(토)  
마. 합격자 발표 : 2010. 1. 28(목)  
바. 등록 : 2010. 2. 2(화) ~ 2. 4(목)  
사. 미등록 충원 기간 : 2010. 2. 5(금) ~ 2. 16(화)

# 서울캠퍼스 전형 주요 사항



## ● 수시 1학기 모집 폐지

- 연세 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은 폐지함
-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은 수시 2~2차에서 모집하며, 미선발 인원이 있을 시 정시모집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에서 선발함

## ● 수시 2학기 모집 전형 신설 및 통·폐합

- 음악특기자 전형을 폐지함
- 교과우수자 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인 진리·자유 전형을 신설함
- 글로벌리더·특기자 전형을 글로벌리더 전형으로 통합함
- 수시 2학기 모집의 시행 시기 및 모집인원 조정

조정 전			조정 후		
시기	전형	인원	시기	전형	인원
2~1차	조기졸업자 전형	250명	2~1차	조기졸업자 전형	200명
	글로벌리더 전형	275명		글로벌리더 전형	500명
	특기자 전형	150명			
2~2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250명	2~2차	진리·자유 전형	344명
	일반우수자 전형	909명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622명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비려대상자 전형	70명	2~2차	사회기여자 전형	20명
			2~2차	사회적비려대상자 전형	50명

## ●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활용 대폭 확대

-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 전형 및 모집인원

전형 구분	정원	전 형	인 원	정원내	정원외 포함
입학사정관 전형 <sup>1)</sup>	내	진리·자유 전형	344명	509 명 (14.95%)	609명 (16.35%)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95명		
		사회기여자 전형	20명		
		사회적비려대상자 전형	50명		
	외	연세한미음 전형	100명		
입학사정관 참여전형 <sup>2)</sup>	내	조기졸업자 전형	200명	700명 (20.56%)	
		글로벌리더 전형	500명		
계				1,209명(35.52%)	1,309명(35.14%)

1) 입학사정관 전형 : 입학사정관이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모두 담당하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임

2)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 입학사정관이 서류, 논술 등의 전형 요소 중 서류평가에 참여하는 전형임

-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 ● 수시 2학기 모집 일반우수자 전형의 기준 골격 유지

- 지원자의 수능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2단계로 선발하는 기준 전형안 유지

단계	계열	수능 자격기준	선별비율
우선선발	인문	언어 수리 「가」, 「나」, 외국어 모두 1등급	60%
	자연	수리 「가」 및 과탐 1등급	
일반선발	인문	언어 수리 「가」, 「나」, 외국어, 사(과)탐 중 3개 2등급 이내 (사(과)탐은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40%
	자연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탐 중 2개 2등급 이내 (수리 또는 과탐 포함하며 탐구는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 수능자격기준 중 우선선발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우선선발은 계열별 우선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생부(20%, 논술(80%)로 선발함(의예·치의예 제외))
- 일반선발은 계열별 일반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생부(50%), 논술(50%)로 선발함

## ●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조건 부과

-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조기졸업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은 수능최저학력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
- 사회기여자 전형의 일부 대상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일반우수자 전형, 진리·자유 전형,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 전형은 모두 부과함

## ● 정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논술을 실시하지 않음
-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70%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수능과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여 선발함
- 자연계 수능(수리 「가」, 과학탐구) 응시자가 인문사회계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탐구과목 4과목 응시 조건과 공학계열 「나」군 선발을 폐지함
- 수시 2학기 모집의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에서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으로 연세한마음 전형을 신설함

# 서울캠퍼스 전형 안내



## 모집인원

구 分	수시모집			정시모집	
	전형구분	인원		전형구분	인원
일반전형	- 일반우수자 전형*	2-1	622명	- 일반 전형(체육, 음악 포함)*	1,507명
특별전형	- 진리·자유 전형*	2-2	344명		
	- 조기졸업자 전형*	2-1	200명		
	- 글로벌리더 전형*	2-1	500명	-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수시모집
	-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2-2	95명		미선발 인원
	- 체육특기자 전형	2-1	50명		
	-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	2-1	16명		
사회통합 전형	- 사회기여자 전형	2-2	20명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36명
	- 사회적비려대상자 전형	2-2	50명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5명
	- 연세한마음 전형*	2-2	100명	-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51명
				- 연세한마음 전형*	19명

1) '\*' 표시된 전형은 의예과 및 치의예과 선발 모집단위가 있음

2) 정시모집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3) 모집인원은 추후 입학요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안내

### 01 수시 2학기 모집 : 2-1차

#### 1) 일반우수자 전형

- **지원자격** : 법령에서 정한 고교 졸업(예정)자
- **모집인원** : 622명 내외
- **전형방법** : 수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및 논술 평가 결과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단계별로 합격자를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分	선발구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논술
2010학년도	우선선발	16	4	80
	일반선발	40	10	50

▶ **최저학력기준** : 적용

계 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 문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사(과)탐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사(과)탐은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수리 또는 과탐을 포함하며, 탐구는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의 치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3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

- **우선선발(의예 · 치의예 제외)** : 계열별 우선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60%를 우선 선발함
- **일般선발** : 계열별 일반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우선선발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인원을 선발함(의예 · 치의예는 100% 선발)

- 각 단계별 선발비율 및 수능자격 기준

단계	계열	수능 자격기준	선발비율
우선선발	인문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모두 1등급	60%
	자연	수리(「ㄱ」 및 과탐 1등급)	
일반선발	인문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시(과)탐 중 3개 2등급 이내 (시(과)탐은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40%
	자연	언어, 수리(「ㄱ」, 외국어, 과탐 중 2개 2등급 이내 (수리 또는 과탐을 포함하여 탐구는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 2) 조기졸업자 전형

- 지원자격 : 2010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 2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 모집인원 : 200명
- 전형방법 : 서류 및 논술 평가결과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분	서류*		대학별고사	비고
	교과	비교과 및 기타 서류		
2009학년도	30	30	40(면접)	단계별 전형
2010학년도	60		40(논술)	일괄합산 전형

\* 서류평가는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함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3) 글로벌리더 전형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의 (1), (2), (3)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다음의 학생부 교과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국내고)

- ①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58단위 이상인 자
- ②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0단위 이상이며 이수단위 기준 평균등급이 2.5등급 이내이며  
지정기간 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③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35단위 이상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기준 평균등급이 각각 3.0등급 이내인 자
- ④ 수학 또는 과학 관련 전문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15단위 이상인 자

(2)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언어에 관한 공인성적(한국어 제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3)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또는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 공인영어성적 응시기간 : 2007. 9. 9 ~ 2009. 7. 12

- 모집인원 : 500명 내외
- 전형방법 : 서류 및 논술 평가결과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분	서류*		대학별고사	비고
	교과	비교과 및 기타 서류		
2009학년도	30	30	40(면접)	단계별 전형
2010학년도	60		40(논술)	일괄합산 전형

\* 서류평가는 모집단위 학문분야(인문사회계, 자연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서울캠퍼스 전형 안내



## 4) 체육특기자 및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

- **지원자격 :** 기본적으로 2009학년도와 동일(단, 체육특기자의 축구 종목은 “2009년 고교리그대회에서 소속팀 총 경기시간의 30% 이상 출전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또는 국제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한 자”로 변경)

## 02 수시 2학기 모집 : 2-2차

### 1) 진리·자유 전형

- **지원자격 :**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교 교과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
  - **모집인원 :** 344명 내외
  -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
    - ▶ 지원자 중에서 교과성적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서류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 ▶ 서류평가 대상자 중 서류평가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 ▶ 나머지 서류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선발 모집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발함
- (단위 : %)

단계	교과	서류 <sup>1)</sup>	면접 <sup>2)</sup>	비고
1단계	100	–	–	2배수 내외를 서류평가 대상자로 선정
2단계	–	100	–	서류로 모집인원의 50% 내외를 선발
3단계	–	90	10	서류 + 면접으로 나머지 선발

1) 서류평가는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평가함

2) 면접은 서류내용 추가확인 및 인성 면접을 시행함

▶ 본 전형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힘에 있어 지원자의 성장 잠재력과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임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2) 사회기여자 전형

- **지원자격**
  -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 2009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자격 중 국위선양자에 체육분야를 추가하고, 5·18 민주유공자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에 포함. 그 외 지원자격은 2009학년도와 동일
-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로 최대 모집인원 2명 이내로 총 20명 이내
- **전형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단계별 전형)
  - ▶ 서류평가 성적으로 면접시험 대상자를 3배수 내외로 선발하고,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시험에서 과락일 경우는 불합격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서류		대학별고사
	교과	비교과 및 기타 서류	
2009학년도	40	10	50(논술)
2010학년도		60	40(면접)

▶ **최저학력기준 :** 부분적용

### 3)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 **지원자격**

- ▶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 그 외 지원자격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나 군인자녀 지원자격을 군 재직기간 총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직업군인 자녀로 변경함

-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로 최대 모집인원 2명 이내로 총 50명

- **전형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

- ▶ 지원자의 성장 잠재력과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 학생부 교과와 서류(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서류(학생부 비교과 포함)	논술
2009학년도	40	10	50
2010학년도	70	30	-

※ 서류(학생부 비교과 포함)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함

-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예고사항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

### 4) 연세한마음 전형(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 **지원자격** :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다음의 (1), (2)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1) 출신 고등학교장추천자

- (2) 우리대학 소속지역[서울(서대문구), 인천(연수구), 원주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100명[학교장추천 92명, 기초자치단체장추천 최대 8명(서대문구 4명, 연수구 2명, 원주시 2명)]

- **전형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

- ▶ 지원자의 성장 잠재력과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 학생부 교과와 서류(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서류(학생부 비교과 포함)	논술
2009학년도	40	10	50
2010학년도	70	30	-

※ 서류(학생부 비교과 포함)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함

-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5)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공인영어성적은 평가에만 반영함)

- **모집인원** : 95명

- **전형방법** : 입학사정관 전형

- ▶ **1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1단계 영어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 ▶ **2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과 영어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分	서 류	영어면접
2010학년도	60	40

-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서울캠퍼스 전형 안내



## 03 정시모집

### 1) 일반 전형

- 기본적으로 수능 반영영역 및 영역별 배점은 2009학년도 방식을 유지함
  - ▶ 수능은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탐구과목은 백분위에 의한 보정점수 활용
- 모집인원 : 1,507명 내외(수시모집 결원 발생 시 모집인원 추가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계 열	학생부	수 능	논 술
2009학년도	인문	50	40	10
	자연	50	50	-
2010학년도	인문·자연	50	50	-

- 우선선발 :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70%를 우선선발함
- 논술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2) 사회통합 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공통
- 지원자격, 수능 반영영역 및 영역별 비율, 전형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2009학년도 방식을 유지함
-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적용함

### 3) 연세한마음 전형(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 지원자격 : 법령에서 정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전형방법 :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모집인원 : 19명
- 전형요소

(단위 : %)

구 分	학생부	수 능
2010학년도	50	50

-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4)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수시모집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모집인원 : 수시 2학기 모집 미선발 인원
- 전형방법
  - ▶ 1단계 선발 : 수능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1단계 영어면접(인성) 대상자로 선발함
  - ▶ 2단계 선발 : 수능성적과 영어면접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다만, 영어면접 시험에서 과락일 경우 불합격 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요소

(단위 : %)

구 分	수 능	영어면접
2010학년도	50	50

-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서울캠퍼스 FAQ

## [ 수시 모집 ]

▣ **수시모집에서 수시 2-1차와 수시 2-2차 모집 전형[예 : 글로벌리더와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까?**

■ **수시 2-1차와 수시 2-2차는 원서 접수 시기는 같지만 시험일자가 다르므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시 2-1차 또는 수시 2-2차 내의 전형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일반우수자 전형과 글로벌리더 전형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글로벌리더 전형과 수시 2-2차에 실시하는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 있습니까?**

■ **수시 2-1차 조기졸업자 전형과 수시 2-2차 진리·자유 전형은 고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 2-1차 글로벌리더 전형, 수시 2-2차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연세한미음 전형은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 **수시 2-1차 일반우수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과 체육특기자 전형(개인종목), 그리고 수시 2-2차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외고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 **수시 2-1차 일반우수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그리고 수시 2-2차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전형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이 있는 전형은?**

■ **수시 2-1차 일반우수자 전형, 조기졸업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입니다.**

▣ **수시 2-1차 글로벌리더 전형에 논술시험이 신설되었는데, 영어논술도 포함됩니까? 그리고 면접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 **영어논술은 예정이 없으며, 면접시험은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 **작년에는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폐지되었습니까?**

■ **2010학년도 수시 2-1차 글로벌리더 전형은 전년도의 글로벌리더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통합한 전형입니다.**

▣ **지원자격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경우,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공인영어성적은 지정기간(2007. 9. 9 ~ 2009. 7. 12) 내에 응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작년에는 수시 2-2차였는데, 2010학년도는 수시 2-1차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형방법도 변경되었습니까?**

■ **일반우수자 전형이 수시 2-1차로 변경되었지만 전형방법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선발을 위한 인문계 수능 자격 기준이 작년의 경우는 인문과 사회로 구분되어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2010학년도에는 인문/사회 공통으로 적용되며, 인문계(인문/사회)는 언어, 외국어, 수리 모두 1등급으로, 자연계(의예, 치의예 제외)는 수리(가)와 과학탐구 영역 모두 1등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을 수능시험 전에 치르게 됩니다. 그 외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며, 비교내신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수생부터 논술시험에 의하여 반영됩니다.**

▣ **서울캠퍼스 수시 2-1차 일반우수자 전형의 우선선발은 별도로 지원합니까?**

■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60%를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선발 수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캠퍼스 FAQ



계열	수능 자격기준
인문계열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영역이 모두 1등급
자연계열(의예·치의예 제외)	수리(가)와 과학탐구 영역이 모두 1등급(과학탐구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1등급 인내)

우선선발 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으로 학생부 50%와 논술 50% 반영되는 일반전형으로 이월되어 평가됩니다. 참고로 의예과, 치의예과 그리고 스포츠레저학과는 우선선발 제도가 없습니다.

**Q**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며, 최저학력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수시 2~5차 일반우수자 전형과 수시 2~2차 진리·자유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 전형은 모두 적용합니다. 사회기여자 전형은 일부 대상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	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 판정기준
인문계열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탐구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자연계열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영역에는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함	과학탐구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과학탐구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1등급 이내

**Q** 수시 2~1차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 반영한다면 고교 졸업 후에 취득한 기타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해외고 출신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합니까?

**A** 비교과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평가하므로 고교졸업 이후에 취득한 서류 및 학생부에 누락된 기타서류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는 비교내신을 적용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수시 2~2차 진리·자유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전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진리·자유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서류평가 대상자로 선정(1단계)합니다. 이후에는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서류평가 대상자 중에서 서류평가만으로 모집인원의 50% 내외를 우선선발(2단계)하며, 나머지 모집인원은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3단계)하게 됩니다.

## [ 정시모집 ]

**Q** 비교내신 대상자는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입니까? 아니면 재수생도 비교내신이 반영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교내신을 반영하게 됩니까?

**A** 비교내신은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비교내신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008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 ② 공업계 2+1, 일반고교 직업과정위탁생 졸업(예정)자
- ③ 교과교육 소년원 고교과정 이수자
- ④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6학기 중 3학기 이상 없는 자
- 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로 석차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자
- ⑥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Q** 정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됩니까?

**A** 일반전형은 반영되지 않으며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전문계고교출신자, 연세한마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전문계고교출신자는 전년도와 같이 직업탐구도 가능함). 다만, 수시모집 모집인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선발하는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은 다음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열	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 판정기준
인문계열	언어, 수리(기)(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탐구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자연계열	언어, 수리(기),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영역에는 수리(기) 또는 과학탐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함)	과학탐구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의예·치의예 (전문계는 해당 없음)	언어, 수리(기),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과학탐구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1등급 이내
체육계열(전문계는 해당없음)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탐구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Q 특별전형에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전형이 있습니까?

A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전문계고교출신자, 연세한마음 전형 모두 졸업년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Q 일반전형의 우선선발 제도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실시합니까?

A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우선선발을 실시합니다.

Q 논술시험이 실시되는 전형이 있습니까?

A 정시모집에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논술시험이 없습니다.

Q 학생부는 석차등급만으로 반영합니까? 그리고 반영 교과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A 학생부 교과영역에서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군의 교과목,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군의 교과목을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 하며, 석차등급으로 반영합니다.

Q 탐구영역 4과목 필수 응시조건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A 작년의 경우는 수능의 탐구영역에서 4과목에 응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0학년도는 3과목만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자연계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동일과목 1, 2 필수 응시조건도 폐지되었습니까?

A 그렇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1, 2 상관없이 자유선택 3과목에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교차지원이 가능합니까?

A 인문계 모집단위에 한하여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인 경우 수능의 언어, 외국어, 수리(기) 또는 (나),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연계는 종전처럼 언어, 외국어, 수리(기),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제2외국어/한문을 인문계 사회탐구 과목의 하나로 인정한다면 사회탐구 과목은 2개만 응시해도 됩니까?

A 아닙니다. 인문계 사회탐구 과목은 반드시 3과목 이상 응시해야 하며, 만약 제2외국어/한문에 응시한 경우 사회탐구 과목으로 인정하여 4과목 이상 중 상위 3과목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Q 수능의 수리(기)에 응시하고 인문계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까?

A 점수가산 여부와 가산 점수는 수능점수 발표 후 공지 예정입니다.

Q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인문계에 지원하는 경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 서울캠퍼스 논술시험 안내



2010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경향은 아래의 예시문제 유형과 함께 전년도 공개된 논술자료집(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들어있는 문제유형을 포함합니다.

## I. 인문계 예시문제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세 문제 모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연민은 우리가 고통 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깊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기심을 낳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을 반추하는 것은 이기심을 강화시킨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어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중략...) 미개인에게는 이러한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는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 본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중략..)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애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종 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 주는 감정인 것이다. 남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은 연민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주며, 이때에 아무도 연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강한 미개인이 악한 어린 아이나 노인이 어렵게 획득한 식량을 강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연민이다.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 대신에, 그다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유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또 다른 원리인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 연민이다. 요컨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의 근원은 교묘한 논리에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감정 속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나 그 부류 사람들의 덕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생존이 개인들의 추론에만 달려 있었다면 종으로서의 인간은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제시문 나〉

심리학적 —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신분석학적 — 연구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이 가진 충동은 모두 비슷하며, 그 목적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충동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충동이 인간 공동체의 욕구 및 요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충동과 그 발현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사회가 악이라고 비난하는 충동 —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기적인 충동과 잔인한 충동을 들 수 있다 — 이 모두 이러한 원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중략..)

‘악한’ 본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 —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 이다. 내적 요인은 에로티시즘 —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랑에 대한 욕망 — 이 악한(이기적인) 본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에로틱한’ 요소가 섞여들면, 이기적 본능은 ‘사회적’ 본능으로 바뀐다. 우리는 남에게 사랑 받는 것을 커다란 이익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익은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적 요인은 가정교육이 행사하는 강박이다. 가정교육은 문화적 환경의 요구를 나타내며, 성장한 뒤에

는 그 환경의 직접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외적 요인을 이룬다. 문명은 본능의 만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 문명세계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적 강박은 끊임없이 내적 강박으로 대치된다. 문명의 영향은 이기적인 경향에 에로틱한 요소를 첨가하여 그것을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으로 바꾸고 그런 변화는 계속 늘어난다. 결국 인간이 발달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내적 강박은 원래 — 즉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 하나의 외적 요인에 불과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오늘날 태어나는 사람은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꾸는 경향을 어느 정도는 유전적 소질로 갖고 있다. 이러한 소질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꾼다. 본능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룩해야 하는 일이다. 이처럼 인간은 당면한 문화적 환경의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문화적 역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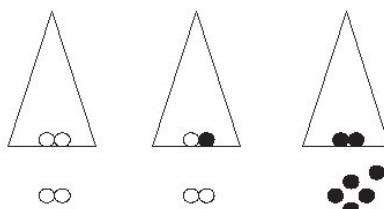
#### 〈제시문 다〉

코스타리카에서 조사를 하고 1983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생물학자 제럴드 월킨슨은 조금은 섬뜩한 얘기를 보고했다. 그가 코스타리카에서 연구한 흡혈박쥐는 낮에 고목에 매달려 있다가 밤이 되면 짐승들을 찾아가 몰래 살갗에 작은 절개창을 내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 해도 상대에게 들켜서 피를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를 자주 굽는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노련한 박쥐는 열흘에 하루 꼴로 이러한 불행을 겪지만 어리고 미숙한 박쥐는 보다 자주 굽게 된다. 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쥐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들었다가 임여분을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좋은 해결책이 있지만, 박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이다. 여분의 피를 서로 나누는 박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박쥐들보다 이익이다. 그러나 먹이를 얻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박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으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박쥐는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박쥐는 같은 장소에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수명은 8년 이상으로 제법 길기 때문에 특정 상대와 여러 차례 게임을 반복할 기회가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장소에 사는 박쥐들이 가까운 친족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이랑을 친족애로 설명할 수는 없다. 월킨슨은 박쥐들이 맞대응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 받는다. 남은 피를 주지 않은 박쥐는 다음에 피를 얻지 못한다. 박쥐들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털을 손질해 주는 행위는 아마도 이 규칙을 강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서로의 깃털을 손질해 줄 때 피를 저장하는 위가 있는 부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 때문이라도 포식으로 불룩해진 배를 다른 박쥐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속임수를 쓰는 박쥐는 쉽게 적발된다.

#### 〈제시문 라〉



흰색 동그라미 : 이기적인 쥐  
검은색 동그라미 : 이타적인 쥐

[그림] 쥐의 생식 모형

어느 가을 들녘을 상상해 보라. 한 해 동안 땅 훌려 추수를 하고 나서 벗짚들을 들판에 쌓아놓았다. 벗짚 더미는 들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보금자리이다. 각 벗짚에 두 마리의 들쥐가 서식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쥐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같은 벗짚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쥐들을 돋는 이타적인 쥐들이며, 다른 부류는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쥐들이다.

그림에서 세모는 벗짚을 나타낸다. 그 속에 그려진 조그만 동그라미는 각각의 벗짚 속에 서식하는 쥐들이다. 검은색은 이타적인 쥐를, 흰색

# 서울캠퍼스 논술시험 안내



은 이기적인 쥐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밑에 그려진 동그라미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벗짚을 제거했을 때 각 벗짚에서 나온 쥐들 중 1세대인 부모세대를 제외한 번식 결과를 나타낸다.

두 마리의 이기적인 쥐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첫 번째 벗짚에서는 두 마리의 이기적인 쥐들이 나왔다. 한 마리의 이기적인 쥐와 한 마리의 이타적인 쥐에 의해 점유되었던 두 번째 벗짚을 제거하자 거기서도 두 마리의 이기적인 쥐들만 나왔다. 반면 두 마리의 이타적인 쥐들이 서식하던 벗짚에서는 올망졸망 많은 수의 이타적인 쥐들이 나왔다.

이 모형은 개인선택과 집단선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각 벗짚은 집단을 나타낸다. 벗짚 내부에서는 개인선택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벗짚을 보면 이기적인 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타적인 쥐들이 모두 없어져버리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선택과정을 통해서는 이타적인 쥐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타적인 쥐들이 많은 집단(벗짚), 정확히 말하면 이타적인 쥐들만 사는 벗짚에서는 더 많은 쥐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오직 두 마리의 쥐들만이 태어날 수 있었다. 각 벗짚에 이타적인 쥐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집단이 얼마나 변성하게 되는지가 결정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이타적인 쥐의 비율이 증가할지 안 할지도 결정된다. 바로 이것이 집단선택과정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이타적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시오.(30점 : 800자内外로 쓰시오.)**

**[문제 2]**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증가하지 않는 대신 개인들의 소액 기부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의 모금액이 경제위기 상황인 2008년에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한다.

**이타적 행위에 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해석 가운데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위의 예시에 나타난 기업과 개인의 기부 행태를 설명하시오. (30점 : 800자内外로 쓰시오.)**

**[문제 3] 제시문 라에서 “다수의 이타적인 쥐로 구성된 집단만이 종족 번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시오. (40점 : 1,000자内外로 쓰시오.)**

# 서울캠퍼스 논술시험 안내



## II. 자연계 기출문제(2009학년도 수시2-2모집)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xy$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  $C$ 가 있다. 고정점  $A(-1,0)$ 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  $C$  위의 한 점  $P$ 까지의 호의 길이를  $l(P)$ 라고 하자. 원  $C$  위의 임의의 두 점  $P_1$ 과  $P_2$ 에 대하여 연선  $P_1 \oplus P_2$ 를 점  $P_1$ 부터 원  $C$ 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l(P_2)$ 만큼 더 이동하여 얻어지는 점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이 연선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족함을 쉽게 알 수 있다.

(1-1) 점  $P$ 가 원  $C$  위의 임의의 한 점이라고 할 때, 연산  $\oplus$ 에 대하여  $P$ 의 항등원과 역원을 나타내는 점은 어떤지 각각 설명 하시오. (5점)

(1-2) 원  $C$  위의 점으로 이루어진 수열  $\{P_n\}$ 이  $P_0, P_{n+1} = P_{n-1} \oplus P_{n-2}$  (단,  $n = 2, 3, 4, \dots$ )로 정의된다.

(a)  $P_0 = A$ 이고,  $P_1$ 은  $l(P_1) = \frac{\pi}{3}$ 인 원  $C$  위의 점일 때,  $P_n = A$ 를 만족하는 자연수  $n$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5점)

(b)  $k$ 가 임의의 자연수이고,  $P_0 = A$ 이며,  $P_1$ 은  $l(P_1) = \frac{2\pi}{k}$ 인 원  $C$  위의 점일 때,  $P_n = A$ 를 만족하는 자연수  $n$ 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1-3) 원  $C$  위의 서로 다른 네 점  $P_1, P_2, Q_1, Q_2$ 가 관계식  $P_1 \oplus P_2 = Q_1 \oplus Q_2$ 를 만족한다면, 두 점  $P_1$ 과  $P_2$ 를 지나는 직선과 두 점  $Q_1$ 과  $Q_2$ 를 지나는 직선이 평행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 인류의 지성이 찾아낸 사실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한 법칙을 공부하려 한다. ... 중력의 법칙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원리가 우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우리는 감동하게 된다. 중력의 법칙이란 과연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주의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작용된다는 것이다.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나) [그림 1]은 2006년 6월초 5일간 인천 앞바다의 해수위 변화를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것이며, 이 관측자료에 대하여 A(교사)와 B(학생)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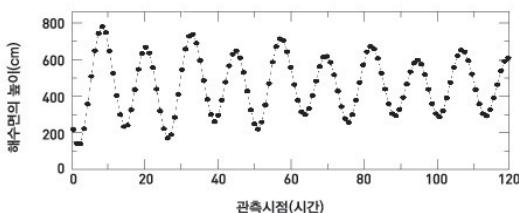
A : 그림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반복하여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수(潮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주로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B : 그러니까 달이 중력으로 지표면의 바닷물을 잡아당겨서 지구 한 쪽의 물 높이는 높아지고 그 반대쪽은 낮아지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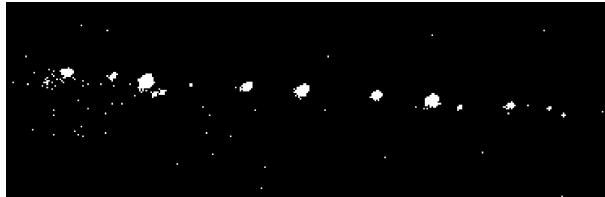
A : 글쎄요. B군의 설명대로라면 조수 현상은 하루에 한 번만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측자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B : 정말 관측자료를 보니까 조수 현상이 하루에 두 번 정도 나타나는군요.

# 서울캠퍼스 논술시험 안내



[그림 1] 인천 앞바다의 해수위 변화



[그림 2] 혜성 Shoemaker-Levy 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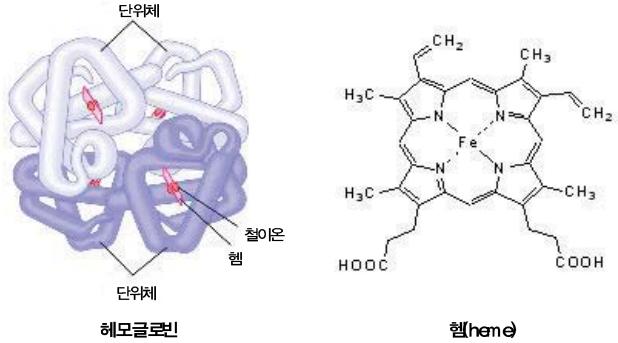
(다) 1994년 7월 Shoemaker-Levy 9호(SL9)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장면이 여러 천문대에서 관측되어 일반인들에게 생중계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태양계 안에서 일어난 천체들의 충돌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림 2]는 SL9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기 약 4개월 전에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찍은 사진이다. 이 혜성은 여러 개의 덩어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기에 “진주목걸이”라고도 불렸다. 원래는 얼음 덩어리들이 모여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던 혜성이 목성 주위에 접근하면서 중력의 차이로 인해 뜨개진 것으로 추측된다.

- 2-1) 제시문 (나)의 조수 현상과 제시문 (다)의 혜성이 뜨개지는 현상은 모두 같은 물리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SL9 혜성이 목성 근처에서 뜨개진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시오. 그리고 혜성의 구성성분, 구조 그리고 지구와 지구 표면의 바닷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조수현상과 혜성이 뜨개지는 현상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5점)
- 2-2) 제시문 (나)에 있는 관측자료만을 사용하여 조수현상의 주기를 계산을 통해 구하고, 이러한 주기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추론하시오. (15점)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가) 유전자의 본체인 DNA는 염기, 당, 인산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유전 정보 암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기는 주로 탄소, 질소, 수소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의 화합물이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는 유전자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 분열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이 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각 염색체가 복제된 후 균등하게 딸세포로 나누어지므로 모세포와 딸세포는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생식 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감수 분열을 하여 부모와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같은 종의 생물들에서는 체세포에 들어 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다.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유전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도 한다.

(나) 폐에서 기체 교환을 마친 혈액은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 혈관에 이르러 조직 세포와 기체 교환을 한다. 즉, 분압의 차이에 따라 산소는 모세 혈관에서 조직 세포로 확산되고, 이산화탄소는 조직 세포에서 모세 혈관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헤모글로빈은 4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위체는 철 이온이 중심에 붙어있는 헴 그룹을 가지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헴에 있는 철이온은 산소(O<sub>2</sub>)와 결합하게 된다. 대부분의 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철 성분을 직접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보조제의 형태로 섭취하여야 한다.



폐와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즉 외호흡과 내호흡은 우리 몸을 이루는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작용이다. 조직 세포에 공급된 산소는 음식물로부터 얻은 영양소를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데 이용된다.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양소의 산화 작용을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세포 호흡에 참여한 산소는 대부분 물로 환원되지만, 일부는 초과산화 이온( $O_2^-$ ), 과산화수소( $H_2O_2$ ), 수 산화 라디칼( $\cdot OH$ )과 같은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는 체내로 침입하는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활성산소가 세포 내에 과다하게 있게 되면 DNA와 단백질 등 중요한 세포 구성 물질이 손상을 입게 된다. 인체에는 초과산화 이온과 과산화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산화 라디칼은 효소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분자들을 공격하여 곤경에 빠뜨린다.

(다)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철 성분의 양은 약 3g에 불과하지만, 이 3g의 철 성분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몸속의 철 성분은 보통 이온으로 존재하며, 흡수된 철 성분은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진다. 원소 상태의 철(Fe)이 2개 또는 3개의 전자를 잃으면  $Fe^{2+}$ 나  $Fe^{3+}$ 상태가 될 수 있다. 체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효소, 그리고 유기화합물 등과 결합한 복합체 형태로 존재하고,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Fe^{2+}$ 는 체내의 과산화수소( $H_2O_2$ )와 반응하여 수산화 라디칼( $\cdot OH$ )을 형성한다. 이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려는 경향이 매우 크며, 주변의 물질로부터 전자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은 환원되고, 반응하는 상대물질은 산화된다.

[3-1] 일반적으로 체내에 철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존재하게 되면 몸에 해롭다고 한다. 과다한 철 성분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과정과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3-2] 많은 학자들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정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생명은 창발성(분자 수준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바로 아래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닌 복잡한 결합체로서, 과거를 간직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존재이다”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 원주캠퍼스 전형일정



본 전형계획(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관련 세부 사항은 입학요강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1 교내 입학설명회

- 가. 2010학년도 전형계획 안내 : 2009. 4. 25(토)
- 나. 수시 2학기 모집 안내 : 2009. 8. 29(토)

## 02 수시 2학기 모집

- 가. 입학원서 접수 : 2009. 9. 9(수) ~ 9. 12(토)
  -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발표 : 2009. 10. 12(월)
  - 면접구술시험 : 2009. 10. 17(토)
  - 영어능력우수자/특기자/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0. 27(화)
  - 학생부우수자 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2. 13(일)
- 나. 수시 2-1차
  - 논술시험 : 2009. 11. 20(금)
  - 합격자 발표 : 2009. 12. 13(일)
- 라. 등록 : 2009. 12. 14(월) ~ 12. 16(수)

## 03 정시 모집

- 가. 입학원서 접수 : 2009. 12. 21(월) ~ 12. 23(수)
- 나.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2009. 12. 31(목)
- 다. 디자인예술학부 실기시험 : 2010. 1. 13(수)
- 라. 디자인예술학부 실기 공개평가 : 2010. 1. 14(목)
- 마. 합격자 발표 : 2010. 1. 28(목)
- 바. 등록 : 2010. 2. 2(화) ~ 2. 4(목)
- 사. 미등록 충원 기간 : 2010. 2. 5(금) ~ 2. 16(화)

# 원주캠퍼스 전형 주요 사항



## ● 수시 2학기 모집 전형명 변경

-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 「학생부우수자 전형」으로 명칭 변경

## ● 수시 2학기 모집 시행 시기 변경 및 모집인원 조정

조정 전			조정 후		
시기	전 형	인 원	시기	전 형	인 원
2~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308명	2~1차	학생부우수자 전형	353명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90명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30명
	특기자 전형	36명		특기자 전형	5명
	조기졸업자 전형	약간명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490명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460명		조기졸업자 전형	10명

## ● 수시 2학기 모집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 전형 및 모집인원

전형 구분	정원	전 형	인 원	정원내	정원외 포함
입학사정관 전형 <sup>1)</sup>	내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30명	75명(4.91%)	75명(4.91%)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40명		
		특기자 전형	5명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sup>2)</sup>	내	조기졸업자 전형	10명	86명(5.63%)	116명(7.59%)
		사회기여자 및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26명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50명		
	외	연세한미음 전형	30명		
합 계				161명(10.54%)	191명(12.50%)

1) 입학사정관 전형 : 입학사정관이 서류 및 면접평가를 모두 담당하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임!

2)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 입학사정관이 서류, 논술 등의 전형요소 중 서류평가에 참여하는 전형임

-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 ● 수시 2학기 모집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변경

- 공인영어성적을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TOEFL 590점(PBT), 240점(CBT), 95점(IBT), TOEIC 850점, TEPS 790점, IELTS 7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원주캠퍼스 전형 주요 사항 YS U

## ●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조건 부과

-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조기졸업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
- 학생부우수자 전형,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비려적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 전형, 지역고교우수자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 조건 부과함

### 【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조건 】

		전형	
모집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우수자 전형</li> <li>– 일반우수자 전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여자 및 사회비려적대상자 전형</li> <li>– 연세한마음 전형</li> <li>– 지역고교우수자 전형</li> </ul>	
인문 사회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사(과)탐 영역 중 수능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사(과)탐 영역 중 수능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수능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수능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의 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1등급 3개 이상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1등급 2개 이상이며,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중 한 영역 이상 포함	

- 탐구는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적용

## ● 정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 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70%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수능과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여 선발함
- 자연계열 수능(수리「가」, 과학탐구) 응시자가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탐구영역 반영방법 조정함
  - 1) 인문사회계열 : 사(과)탐 50% → 100%
  - 2) 자연계열 : 과탐 150% → 100%
- 의예과의 탐구 4과목 응시조건을 폐지함
- 모집인원 조정함

조정 전		조정 후	
전형	인원	전형	인원
일반 전형	486명	일반 전형	484명
디지털예술학부(예체능) 전형	36명	디지털예술학부(예체능) 전형	40명

※ 수시모집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에서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원주캠퍼스 전형 안내



## 모집인원

구 分	수시모집			정시모집	
	전 형	시 기	인 원	전 형	인 원
일반전형	– 일반우수자 전형*	2-2	490명	– 일반 전형*	484명
특별전형	– 학생부우수자 전형*	2-1	353명	–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40명
	–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2-1	30명		
	– 특기자 전형	2-1	5명		
	–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2-1	40명		
	– 조기졸업자 전형*	2-2	10명		
사회통합 전형	–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2-2	50명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61명
	– 연세한미음 전형*	2-2	30명		
	–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비려대상자 전형*	2-2	26명		

1) '\*' 표시된 전형은 의예과 선발 모집단위가 있음

2) 정시모집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3) 모집인원은 추후 입학요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안내

### 01 수시 2학기 모집 : 2-1차

#### 1) 학생부우수자 전형

- **지원자격** :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교 교과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
- **모집인원** : 353명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分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2010학년도	90	10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2)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TOEFL 590점(PBT), 240점(CBT), 95점(IBT), TOEIC 850점, TEPS 790점, IELTS 7점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한 자(공인영어 시험 응시기간 : 2007. 9. 9 ~ 2009. 7. 12.)

# 원주캠퍼스 전형 안내

- **모집인원** : 30명(인문과학부 10명, 사회과학부 10명, 경영학부 10명)
- **전형방법**
  - ▶ **1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 ▶ **2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영어능력,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서류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30	30	40(면접)
2010학년도		60	40(면접)

-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3) 특기자 전형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의 (1), (2)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1) 전국 규모의 주요문학상, 신춘문예 입상자
  - (2)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대회 입상자
- **모집인원** : 5명(인문과학부 3명, 디자인예술학부 2명)
- **전형방법**
  - ▶ **1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 ▶ **2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수상경력,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자료	면 접
2010학년도	50	50

-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4) 동아시아국제학부(EIC) 전형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공인영어성적은 평가에만 반영함)
- **모집인원** : 40명
- **전형방법**
  - ▶ **1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 ▶ **2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 기타자료	영어면접
2010학년도	60	40

-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주요특징**

- ① 신촌캠퍼스 언더우드 국제대학과의 이중전공 기회
- ② 신촌캠퍼스 외의 소속변경 기회
- ③ 해외 교환학생 제도(성적요건 충족시 기회 보장)
- ④ 국내외 기업 인턴십 제도(성적우수자에게 우선 배정)

## **02 수시 2학기 모집 : 2~2차**

### **1) 일반우수자 전형**

- **지원자격** : 법령에서 정한 고교 졸업(예정)자
- **모집인원** : 490명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40	10	50(논술)
2010학년도	36	4	60(논술)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2) 조기졸업자 전형**

- **지원자격** : 2010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2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 **모집인원** : 10명(단, 의예과는 2명 이내 선별)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서류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30	30	40(면접)
2010학년도		40	60(논술)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3)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의 (1)~(7)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체육 분야 포함)
  - (2) 5.18민주유공자
  - (3)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 (4) 환경미화원
  - (5) 다문화가정
  - (6) 직업군인(군 재직기간 총 15년 이상 재직 종인 직업군인 자녀)
  - (7)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
- **모집인원** : 26명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40	10	50(논술)
2010학년도		60	40(논술)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예고사항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지원자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

# 원주캠퍼스 전형 안내

## 4) 연세한마음 전형(정원 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다음의 (1), (2)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2) (1)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며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30명(기초자치단체장 추천자 12명 포함)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40	10	50(논술)
2010학년도		60	40(논술)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5) 지역고교우수자 전형(학교장 추천자)

- 지원자격 :** 강원도 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38명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서류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40	10	50(논술)
2010학년도		40	60(논술)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6) 지역고교우수자 전형(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1)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관·학 협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그 소재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12명(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 2명)
-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서류	대학별 고사
2009학년도	40	10	50(논술)
2010학년도		40	60(논술)

▶ 최저학력기준 : 적용

## 03 정시모집

### 1) 일반 전형

- 지원자격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집단위별 응시조건을 충족시키고 다음의 (1), (2), (3)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 (2)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수능은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탐구과목은 백분위에 의한 보정점수 활용
- 모집인원 : 484명(수시모집 결원 발생 시 모집인원 증원됨)
- 전형방법

(단위 : %)

구 분	학교생활기록부		수 능
	교 과	비교과	
우선선발	-	-	100
일반선발	40	10	50

※ 수능성적 우선선발 :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의 70%까지 수능성적만으로 우선선발함

### 2) 전형요소

(단위 : %)

모집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성적	
	언 어	수 리		외국어	탐 구			
		(가)형	(나)형		사회	과 학		
인문	100	-	-	100	100 <sup>1)</sup>	300	500(총점×500/300)	
사회	100	100	-	100	100 <sup>1)</sup>	400	500(총점×500/400)	
자연	100	150	-	100	-	100 <sup>2)</sup>	450	
의 예	100	150	-	100	-	150	500	

※ 1) 2009학년도 50점 배점에서 100점 배점으로 조정 2) 2009학년도 150점 배점에서 100점 배점으로 조정

### 2)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전형

-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등은 기본적으로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모집인원 : 40명

### 3) 사회통합 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공통
- 지원자격, 수능 반영영역 및 영역별 배점 비율, 전형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2009학년도 방식을 유지함

### 4) 동아시아국제학부(EIC) 전형(수시모집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2007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공인영어성적은 평가에만 반영함)
- 모집인원 : 수시 2학기 모집 미선발 인원
- 전형방법
  - ▶ 1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 ▶ 2단계 선발 :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전형요소

(단위 : %)

구 분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 기타자료	영어면접
2010학년도	6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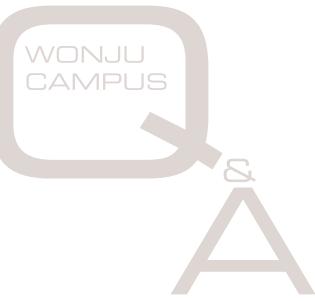
▶ 최저학력기준 : 없음

# 원주캠퍼스 FAQ



## [ 수시 모집 ]

- Q** 수시모집에서 수시 2~1차와 수시 2~2차 모집 전형[예: 학생부우수자 전형과 일반우수자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까?
- A** 수시 2~1차와 수시 2~2차는 원서 접수 시기는 같지만 시험일자가 다르므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시 2~1차 또는 수시 2~2차 내의 전형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영어능력우수자 전형과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특기자 전형과 수시 2~2차에 실시하는 일반우수자 전형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 있습니까?
- A** 수시 2~1차 학생부우수자 전형과 수시 2~2차 조기졸업자 전형, 지역고교우수자 전형은 고교 재학생(졸업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 A** 수시 2~1차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해외고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 A** 수시 2~1차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그리고 수시 2~2차 사회기여자 및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전형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Q** 수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이 있는 전형은?
- A**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조기졸업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연세한마음 전형입니다.
- Q**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가능 합니까?
- A** 2010학년도부터 영어능력우수자 공인영어성적은 TOEFL 590점(PBT), 240점(CBT), 95점(IBT), TOEIC 850점, TEPS 790점, IELTS 7점 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Q**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에서 면접을 영어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다면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으로 진행하며, 영어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Q** 지원자격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경우,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A** 공인영어성적은 **지정기간(2007. 9. 9 ~ 2009. 7. 12)** 내에 응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Q** 동아시아국제학부(EIC) 전형으로 합격하면 어떤 특전이 있나요?
- A**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원주캠퍼스의 국제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부로써 동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4년간 모든 교육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해외 유수한 학자들과 본교의 국제적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해외교환학생제도와 기업인턴십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입학성적 상위 15%이내인 학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TOEFL 270점 (CBT), TOEIC 940점 이상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게는 2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문의 : 033-760-2347).
- Q** 서울캠퍼스와 연계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A** 서울캠퍼스와 연계 교류 프로그램은 소속변경제도와 이중전공, 복수전공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소속변경제도는 원주캠퍼스 소속을 서울캠퍼스로 소속을 옮겨가는 제도를 말하며 2학년과 3학년에 기회가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중전공제도란 원주캠퍼스 학생이 계열에 관계없이 캠퍼스 간 중복되지 않는 전공에 한해 서울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복



# 원주캠퍼스 FAQ

수전공 제도란 졸업예정인 학생이 본인이 이수한 전공 이외의 전공을 계열에 관계없이 서울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증서를 하나 더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수전공 지원자격은 3,4학년 성적이 3.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원주캠퍼스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은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는데 통학할 수는 없는지요?

▶ 원주캠퍼스에서는 2007학년도부터 Residential College라는 기숙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학생은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원주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교직이수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습니까?

▶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전공으로는 영어영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및 의화학, 생명과학, 경제학, 경영학, 환경공학, 간호학과 등이 있습니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며, 최저학력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수시 2~1차 학생부우수자 전형과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배려적 대상자 전형,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연세한마음 전형은 모두 적용합니다.

모집 계열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부우수자 전형</li><li>- 일반우수자 전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li><li>- 연세한마음 전형</li><li>- 지역고교우수자 전형</li></ul>	
인문 사회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사(과)탐 영역 중 수능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언어, 수리(ㄱ, ㄴ), 외국어, 사(과)탐 영역 중 수능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수능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수능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하 또는 2등급 1개 이상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1등급 3개 이상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1등급 2개 이상이며,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중 한 영역 이상 포함	

- 탐구는 상위 2과목 평균 등급 적용

▣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 반영한다면 고교 졸업 후에 취득한 기타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해외고 출신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합니까?

▶ 비교과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평가하므로 고교졸업 이후에 취득한 서류 및 학생부에 누락된 기타서류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는 비교내신을 적용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정시모집 ]

▣ 비교내신 대상자는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입니까? 아니면 재수생도 비교내신이 반영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교내신을 반영하게 됩니까?

▶ 비교내신은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비교내신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008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 ② 공업계 2+1, 일반고교 직업과정위탁생 졸업(예정)자
- ③ 교과교육 소년원 고교과정 이수자
- ④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6학기 중 3학기 이상 없는 자
- 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로 석차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자
- ⑥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원주캠퍼스 FAQ



**Q** 정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됩니까?

**A** 일반전형은 반영되지 않으며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전문계고교출신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전문계고교출신자는 전년도와 같이 직업탐구도 가능함).

인문사회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사(과)탐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사회(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파목 중 상위 2개과목 이상 3등급 이내)
자연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과탐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탐구는 2과목 이상 3등급 이내)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탐구는 2과목 이상 1등급 이내)

※ 의예과는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Q** 특별전형에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전형이 있습니까?

**A**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전문계고교출신자 모두 졸업년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Q** 일반전형의 우선선발 제도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실시합니까?

**A**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70%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수능과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여 선발합니다.

**Q** 논술시험이 실시되는 전형이 있습니까?

**A** 정시모집에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논술시험이 없습니다.

**Q** 학생부는 석차등급만으로 반영합니까? 그리고 반영 교과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A** 학생부 교과영역에서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군의 교과목,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군의 교과목을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며, 석차등급으로 반영합니다.

**Q** 원주의예과 탐구영역 4과목 필수 응시조건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A** 작년 원주의예과의 경우는 수능의 탐구영역에서 4과목에 응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0학년도는 3과목만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원주의예과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동일과목 1, 2 필수 응시조건도 폐지되었습니까?

**A** 그렇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1, 2 상관없이 자유선택 3과목에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교차지원이 가능합니까?

**A**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경우 수능의 언어, 외국어, 수리(가) 또는 (나),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계는 종전처럼 언어, 외국어, 수리(가),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고 인문계에 지원하는 경우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 캠퍼스 안내



## 원주(매지)캠퍼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울캠퍼스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 입학처 (02)2123-4131  
원주캠퍼스 220-71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마지리 234 | 입학관리부 (033)760-2828  
<http://admission.yonsei.ac.kr>